

지역업체 개성공단 출입 막혀 '발 동동'

북한이 한미 연례 군사훈련 '키 리졸브'에 항의, 9일 남북간 군 통신선을 전면 차단함에 따라 당장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이 필요한 인력과 물건을 보내거나 받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음달 금강산 관광 재개를 준비하고 있는 현대아산도 북한측의 강경 대응에 당황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실제 파선잡화 전문업체 서도산업의 경우 개성공단 공장내 3명의 상주 인력 가운데 2명이 이날 파주시 남북 출입사무소까지 올라갔지만 북한 땅을 밟지 못했다.

지금까지 군 통신선을 통해 남북간 출경 명단 등을 서로 주고 받았으나, 유일한 채널이 끊어져 통보 자체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사실상 개성공단을 왕래하는 인력과 차량의

입주업체들 "출입 통제 장기화면 큰 타격"

현대아산, 금강산 관광 재개도 차질 우려

출입 승인 업무가 전면 마비된 상황이다.

보성 출신인 문창섭 개성공단 입주업체협의회 회장은 "당장은 사람이 못 올라가는 정도지만, 이런 상태가 장기화하면 문제가 커질 것"이라며 "관리 인력 뿐 아니라 원료를 올려 보낼 수도, 개성공단에서 완성된 제품을 국내 시장에 들어오지도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전선임가공품을 생산하는 담양 부천공업측도 9일 원자재차량이 들어가지 못하고,

제품차가 나오지 못해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

부천공업 관계자는 "매일 원자재차와 제품차가 나오고 들어가야 하는데 처음 겪는 일이라서 다소 당황스럽다"며 "재고가 상당분 있어서 공장 가동에는 당장 문제가 없지만 장기화되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계를 생산하는 로만손 관계자는 "본사 쪽에 이미 2개월동안 판매할 수 있는 재고를 확보해둔 상태라 당장 영업에는 문제가 없다"며 "그러나

통신 차단 기간이 길어질수록 정상 경영이 힘들어진다"고 밝혔다.

또 입주업체들은 가뜰이나 세계적 경기 침체로 고전하는 가운데, 이번 통신 차단으로 남북 긴장이 더욱 고조되면 수주 등 영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해와 바이어들이 안정적 공급을 의심하고 개성공단 업체들에 주문을 주지 않는 현상이 심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대아산 관계자는 "금강산 관광 재개 목표를 4월로 잡고 있는 상황에서 당혹스럽다"면서도 "그래도 재개 작업은 흔들림없이 진행할 것이고, 이번 통신 차단이 전면적인 것인지도 좀 더 지켜봐야한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31사단 '키 리졸브' 훈련 돌입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향토사단인 31사 503보병 여단 장병들이 9일 광주시청 총무실에서 한·미 연합 군사작전인 'KRI(Key Resolve)-FE(foal eagle)'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위정량기자 jrwi@kwangju.co.kr

"북한 문제에 환상 갖지 않는다"

보즈워스 특사, 柳 외교 만나 北 미사일 등 논의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북한 정책을 총괄하는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9일 북한의 군 통신 차단에 대해 "유감스러운 조치"라고 밝혔다.

보즈워스 대표는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우리측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남북관계는 6자회담을 통해 긴장을 완화하는 핵심요소"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이날 9일 정부의 외교안보라인 고위 인사들과 연례 회동했다. 보즈워스

특별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이상 회 국방장관과의 면담을 시작으로 유명환 외교통상장관, 현인택 통일장관, 김성환 외교안보수석,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 외교안보 고위 당국자들과 연례 회동, 대북정책을 조율했다.

특히 유명환 장관과 북핵 6자회담 우리측 수석대표인 위성락 본부장과는 각각 회동과 오·만찬을 함께 하며 북한 미사일 문제에 대한 대책과 북핵 6자회담 진전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보즈워스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한남동 외교통상부 장관공관으로 유

명환 외교부 장관을 예방한 자리에서 "북한 문제가 매우 힘든 임무인 것을 알고 있지만 한·미 간의 협력을 통해 이 문제를 진전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며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해 어떤 환상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보즈워스 대표와의 회동은 주로 북한 미사일 문제에 초점이 맞춰졌다"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막기 위한 대책과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했을 때 대응방안을 동시에 논의했다"고 말했다.

보즈워스 대표는 이날 하루 땀땀한 일정을 소화한 뒤 10일 오전 귀국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상황에 따라 방한 일정을 마친 보즈워스 대표가 전격 방북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그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연협뉴스

김현희-다구치 가족

11일 부산서 만난다

지난 1987년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의 범인인 김현희(47)씨와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 다구치 아에코(田口八重子)씨 가족과의 면담이 오는 11일 한국에서 이뤄진다고 나카소네 히로후미(中曾根弘文) 일본 외상이 9일 발표했다.

나카소네 외상은 이날 외무성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다구치씨의 오랜 일본 납치피해자가족회 대표 이즈카 시게오(70)씨 등이 부산에서 김씨와 만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연협뉴스

티베트인 주거지역서 中 경찰차량 폭발

무장봉기 50주년...티베트 일촉즉발

당국, 검문검색 강화 '준계엄상태'

티베트 봉기 50주년 기념일을 하루 앞둔 9일 티베트인 집단 주거지역에서 중국 경찰차량 2대가 폭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중국 신화통신은 이날 새벽 2시(현지시간)께 칭하이(靑海)성 위수(玉樹)티베트자치주의 한 목재 농장에서 경찰 차량 2대가 사제폭탄 공격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린야쑹 위수티베트자치주 당서기는 "사제폭탄이 폭발하면서 경찰 차량의 비상등과 지붕이 파괴됐으며 경찰 소방차도 파괴됐다"면서 "그러나

상상자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중국 산악경찰은 8일 오후 바이마 인근 마커허목재농장 검문소에서 현지 티베트 주민들의 목재 트럭을 세우고 물건과 면허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경찰은 당시 검문 과정에서 트럭을 몰던 사람들과 말쑤움이 일어나자 티베트 주민 수십명이 검문소로 몰려들어 밤늦게까지 항의하는 사태가 일어났다고 말했다.

한편 티베트인들이 중국의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하기 위해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의 지휘 아래 벌

었던 티베트 봉기가 10일로 50주년을 맞는 가운데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고 외신은 전하고 있다.

티베트 전역과 인근 쓰촨(四川), 간쑤(甘肅), 칭하이(靑海) 등지의 티베트인 집단 거주지에 무장병력이 배치돼 '준계엄상태'의 삼엄한 경계를 띄고 있지만 크고 작은 시위가 일어날 가능성 크다는 것이다.

지난 1959년 3월10일 티베트 봉기 때 1만5천여명의 희생자가 났고, 작년에는 봉기 기념일 4일 후인 14일 라싸에서 대규모 유혈 시위가 발생해 220여명의 사망자가 났던 만큼 이번에도 시위가 재발하면 큰 피해가 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라싸에는 한국 교민 12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고, 비상사태에 대비해 주중 한국대사관과 비상연락 체제를 갖췄다. /연협뉴스

www.kimyoung.com.kr

그동안 12만 5천여명 편입합격

김영편입학원

충주 동부경찰서 바로 뒤 (062)227-6068

2010학년도 편입대비

편입합격 12만 5천여명

대학편입 대개강 4월 1일

세기보청기, 세계 속에 우뚝서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 세기보청기

3세기스타·세기보청기

1188-8400 / 062-227-8100